

朝鮮時代 服飾用語 研究 II
- 織物關聯用語를 中心으로 -

김진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Textile Terminologies of the Chosun Period

Jin Goo Kim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 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textile related terminologies of the Chosun perio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ce and to examine some textile related terms such as *goro*, *moorui*, *modan*, *mosa*, *shiok*, *jal*, *gaam*, and *chien*.

These words were examin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origins, meanings, and neighbouring languag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word *goro* of the Chosun period was derived from the Chinese *ku lo* 穀羅 or 縐絡. Korean *goro* or *goroi* is a transliteration of the Chinese *ku lo*.

It is considered that Korean *moorui* 무뢰 was a transliteration of the Chinese *moolo* 霧羅.

The word *modan* 帽緞 was a kind of rich silk fabric. Manchurian *kamku* 帽緞 was derived from Arabic word *kamkha*.

The word *mosa* 帽紗 was translated as *mooro* in Korean. This *mooro* was found as a transliteration of the Chinese *moolo* 霧羅.

The word *shiok*, *shiork*, *shiuk*, *shiurk*, or *shiu* 시으 means felt in Korean.

Similar words to Korean *shiok* was found in Afro-Asiatic family such as Egyptian, Hebrew, and Assyrians. Egyptian *shiu* means a sheep or a goat.

The word *jal* meaning black sable was originated in the Chinese *tzuerl* 子兒皮, balack sable.

The word Korean *gaam* ㄱ음, ㄱ음, was similar to Mongorian *kam* meaning a material. Also Iraq-Arabian *xaam* meaning raw, unworked, unprocessed, had the same meaning as the Korean *gaam*. *Xaam* and *gaam* have almost the same phonetical sounds. The Korean *gaam* was derived from the *xaam* of Iraq-Arabian.

Korean *chien* meaning cloth was derived from the Chinese *chyan* or *chien* 巾.

Key words: 고로(*goro*), 무뢰(*moori*), 시옥(*shiok*), 잘(*jal*), ㄱ음(*gaam*).

로서 織物關聯用語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문헌기록에는 織物名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그 이름들의 語源이나 연원이 어디에 있으며, 주변언어

이 연구는 朝鮮時代 服飾用語 研究의 연속 연구

들과의 관련성은 있는지 등에 대하여 학계에서 깊이

이 논문은 2000년도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비로 이루어진 것임.

있게 논의되어온 바가 없어 왔거나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던 織物關聯用語들을 택하여 그 이름들의 語源이나 본래의 의미, 주변언어와의 관련성을 비교하여 보는 것을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織物관련 용어란 織物名과 織物名은 아니지만 織物과 관련있는 用語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고로, 무뢰, 帽緞, 帽紗, 시옥, 잘, 走紗, ㄹ음, 천(布帛) 등의 어원이나 본래의 의미, 주변 언어와의 관련성 등을 위와 같은 순서로 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논문 전개를 위하여 편의상 가나다 順으로 배열하여 논하기로 한다.

II. 織物關聯用語의 考察

1. 고로, 고뢰

李朝語 고로 또는 고뢰라는 말은 綾을 의미하는 말이다. 綾에 대한 설명을 문헌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占代에는 布帛之細者를 綾이라고 하였다.

說文에 綾, 東齊謂 布帛之細者曰凌, 从糸夌聲. 이라 있다.

釋名, 釋采帛에는 綾, 凌也. 其文望之如冰凌之理也.

玉篇에는 綾, 文縉이라 있다.

正字通에서는 綾, 織素爲文者曰綺. 光如鏡面有花卉狀者曰綾. 이라 설명하였다.

綾은 대체로 單色 斜紋織의 織物을 지칭한다. 이 의미는 現今까지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고로의 로는 絡의 漢音 lo와도 同音이다. 廣韻에 絡字는 盧各切. 音洛이라 있어 lo 음이다. 縹絡은 縹의 의미이다.

縹絡에 대하여 廣雅疏證 第七下에서는 縹絡納也라고 설명하였다.

綾의 의미로 쓰였던 朝鮮의 고로 또는 고뢰라는 말은 中國에서 유래된 말로서 縹羅 縹絡과 同音이다. 縹羅나 縹絡은 모두 綺屬이다. 綾도 綺屬에 속한다. 綺와 綾은 單色으로 짠 文縉이란 점에서 그렇다. 顏師古는 綺를 顏師古 당시의 細綾이라고 설명하였다.

漢書, 高帝紀下에 賈人毋得衣錦繡縹縹縹縹.

注 師古曰, 綺, 文縉也. 卽 今之 細綾也.

漢語 綾을 朝鮮에서 고로 또는 고뢰라고 한 까닭은 綾, 縹羅, 縹絡가 모두 같은 綺屬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縹羅 또는 縹絡의 漢音 ku lo를 國音으로 音譯한 것이 李朝語 고로 또는 고뢰이다.

고로와 고뢰에 대한 기록을 문헌자료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四聲通解 下 57에 綾, 綺也. 고로 라고 있다.

訓蒙字會 中 30에도 綾 고로 롱이라 있다.

韻譯小學 9의 106에도 상해 흰기를 남고 고뢰며 슬기며 금슈를 쓰디 아니하며 常衣絹素 不用綾羅錦縹라고 있다.

朝鮮館 譯語 衣服門에는 綾 果落이라 있다. 果落의 落字가 綾으로 된 本도 있지만 落字가 옳다고 한다.

小學諺解 6의 98에 슬기며 고뢰며 라 있다. 宣祖 繼妃 仁穆王妃의 大斂內備 衣樹條에는 靑金線 古奴 小卑衣라고 보인다.

여기에 보이는 古奴도 綾의 의미인 고로를 漢字로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로란 말이 어느 주변어와 관련이 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었다. 고로를 罽(罽)롱이라고 하는 說이 있지만 그것은 무리한 추론이라 생각한다.

李朝語 고로라는 말은 이 말의 연원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 유래된 말인지 주변언어에서 유사한 말을 찾아 보고자 한다.

고로 또는 고뢰와 類音이면서 織物名인 말은 漢語에서 찾아 볼 수 있다. 縹의 漢音은 廣韻, 集韻, 韻會, 正韻에 胡谷切 音斛. 屋入聲 이라고 있어 hu(hwu) 음이다.

그러나 縹字는 hu음 외에 ku음도 있다. 縹과 同字로 통하는 글자에 縹字가 있는데 이 글자는 廣韻, 集韻에 空谷切 音哭屋入聲이라고 있어 ku음이다.

國音으로도 縹字는 혹과 곡 두가지 음이 있다. 訓蒙字會 中 31에 縹 무뢰곡 이라 있고 大漢韓辭典에서는 縹字의 古음이 혹이라고 하였다.

羅字는 國音으로 라 이지만 漢音으로는 lo음이 있다. 이 羅字의 우리말 訓이 노이다. 또한 羅의 漢音 lo는 國音으로도 노로 표음되어 쓰였다.

訓蒙字會 中 30에 羅 耨라 라고 있다. 杜詩諺解 11²³에 香羅 耨다운노는 이라 있고, 老乞大 下 45에

白羅大搭胡 纈노 큰 더르래에 라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朝鮮館 譯語 衣服門에서 纈을 果落이라 하였다. 果落은 漢音으로 果는 *kuo, ko*, 落은 *lo*음이어서 이것은 國音인 고로의 漢音 音寫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뢰는 고로의 변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纈을 纈라 하고 있다. 內訓 2:14에 纈는 기비오 纈은 纈라 하고 있다. 羅는 纈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纈은 纈라는 것은 纈은 羅라는 의미로서 纈는 羅이고 纈은 노(羅)의 변음이다.

2. 무뢰

李朝語로 縞와 纈을 무뢰라고 한다. 訓蒙字會 卅31에서 縞와 纈을 찾아 보면, 縞 무뢰추 俗呼縞紗, 纈 무뢰국 이라고 있다.

縞紗는 經緯疏細하게 짠 絲織物을 말한다. 湖縞를 또한 縞紗라고도 하는데 湖縞라고 하는 縞紗는 浙江省 湖州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纈도 縞紗이다.

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헌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說文에 纈, 細縛也.

釋名에는 纈, 細縛也. 其形戚戚視之如粟也.

說文通訓定聲에 纈, 細縛也. 按今之縞紗也 增韻에 纈, 縞紗曰纈, 紡絲而織之.

漢書 江充傳에 充衣紗纈禪衣. 라고 있다. 顏師古의 注에는 紗纈, 紡絲而織之也, 輕者爲紗, 縞者爲纈. 이라 있다.

後漢書, 章帝紀에 詔齊相省冰執方空纈. 注에 纈, 紗也.

太平御覽, 布帛部, 纈條에 釋名曰, 纈, 粟也, 其形戚戚如也.

廣雅, 釋器에 纈, 絹이라고 있다.

廣雅疏證 卷 第7下에서 纈에 대한 설명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說文, 纈, 細縛也. 釋名云纈, 粟也, 其形戚戚視之如粟也, 又謂之沙亦 取戚戚如沙也. 宋玉, 神女賦, 動霧纈以徐步兮. 李善注云, 纈, 今之輕紗薄如霧也.

大漢韓辭典에서는 纈을 저사곡(縞紗)과 고운김곡

(細縞) 두가지로 설명하였는데 고운김(細縞)을 霧纈과 同一織物로 보았다.

南廣祐의 古語 辭典과 劉昌惇의 李朝語 辭典에서는 무뢰를 곱고 가는 김이라 설명하고 訓蒙字會 31의 무뢰추(縞), 무뢰국(纈)을 예로 들었다.

무뢰, 무리, 무리, 무려, 몰위 등은 우박을 일컫는다.

縞와 纈 즉, 織物名으로서의 무뢰라고 하는 말의 연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이 말의 연원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었다.

絡은 生縞, 綿紬, 綃 등의 의미가 있다.

무뢰라는 말은 漢語 紩羅, 紩絡, 霧羅에 대한 國語의 音寫로서 이것의 변음이라 해석된다. 羅는 纈의 의미도 있다. 卽, 霧纈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서의 霧羅를 國語로 읽은 것이 무뢰라고 보인다. 霧綃, 霧纈이라는 말들은 모두 雲霧처럼 가볍고 섬세하며 부드러운 綃에 대한 표현이다. 무뢰의 무음은 霧를 國音으로 읽은 것이고 뢰음은 羅의 漢音 *lo, luo* 등의 國音 변음으로 해석된다.

3. 帽緞

漢清文監 布帛類에서는 帽緞을 감쿠라 하였다. 同文類解 下 24에서는 冒段을 감쿠라 하였다.

帽緞과 冒段은 同一織物임을 알 수 있다.

이 감쿠란 말과 비교할 수 있는 말을 주변어에서 찾아 보면, *camaca, cammaka, camoca, camococa, camak* 등으로 표기되는 말이 있다.

이 직물은 화려하고 두꺼운 직물로서 silk와 낙타털, silk와 cotton을 섞어 짜거나 또는 silk만으로 짠 직물이며 紋樣을 넣어 짰는데 때로는 無紋으로 짜기도 했다. 이 織物은 中世의 직물명으로서 14C에 그리스와 싸이푸러스 섬에서 생산되었다.

滿洲語 감쿠는 *camak* 또는 *camaca*의 音譯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漢語 帽緞, 冒段은 *camak*이라는 것도 확인된다.

4. 帽紗

譯語類解 下 4에서는 帽紗를 무로라고 설명하였다. 무로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 수 없다. 才物譜 布帛에 보면 帽紗를 무스라고 하였다. 무로는 帽羅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方言類釋 布帛類에서 羅에 대한 滿洲語와 蒙古語를 찾아보면 羅를 滿洲語로 처리, 蒙古語로는 로 라고 한다. 帽羅를 滿洲語로 사할란 처리, 蒙古語로 하라 로 라고 한다. 滿洲語 사할란은 黑 검다는 뜻이고 蒙古語 하라도 黑色이란 뜻이다. 黑鼠皮를 滿洲語로 사할란 섬피라 하고 黑馬를 蒙古語로 하라모리라고 한다.

이로써 帽羅는 黑羅라는 것이 확증된다.

5. 시웁, 시옥, 시웁, 시옥, 시으

朝鮮時代に 氈을 시웁, 시옥, 시웁, 시옥 시으라고 하였다. 조선말 대사전에 의하면 시웁은 시웁ㅎ → 시웁 → 시옥으로, 시옥은 시웁ㅎ → 시웁 → 시옥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시으는 시옥 시옥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 訓蒙字會 中 30에서는 氈에 대하여 시옥전 俗呼氈條 又曰 條子라고 설명하였다. 條子앞에 氈字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朝鮮館 譯語 衣服門에 氈條라는 말이 있다. 文璇奎는 氈條를 毛布라고 하였다¹⁾.

氈은 felt를 지칭하는 말이다. 또한 氈은 毛席 毛褥의 뜻도 있다.

老乞大 譯解 下 61에는 시으갓 일빅낫 氈帽兒 一箇라고 있다. 시웁, 시옥, 시웁, 시옥 또는 시으라고 하는 말의 유래나 語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누구도 관심을 가져온 바가 없었다. 따라서 이 말들이 어느 語와 관련이 있으며 본래의 뜻은 무엇인지 밝혀진 바가 없었다.

시웁, 시옥, 시웁, 시옥, 시으와 비교할 수 있는 말이 주변어에 있는지 찾아보면 이 말들은 Afro-Asiatic 語族에서 발견할 수 있다.

Heb.에 shea란 말이 있다.

이 말은 one of a flock, a sheep(or goat)라는 뜻이다. 이 말은 Ass. ša'u, Ar. shewah, pl 즉 pl., shaa, shewah 등과 같은 말이며 또한 wild ox의 의미도 있다.

Egypt. sau는 sheep을 의미한다.

Heb. sheio, shieu 등은 shea의 接尾語가 다른 말이다. Heb. shea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 의미가 있다. 單

數名詞일 때의 뜻은 a sheep or goat이고 집합명사로 쓰일 때는 flock의 의미이다.

이 말이 재물로서의 의미로 쓰일 때는 shor이다.

위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氈을 의미하는 시웁, 시옥, 시웁, 시옥, 시으란 朝鮮시대의 말은 Afro-Asiatic 語族에 속하는 희브리어, 앓시리아어, 이집트어, 아랍어 등과 유사하다. 국어사전 등에서는 시웁, 시옥, 시웁, 시옥은 각각 시웁ㅎ와 시웁ㅎ 변종 표기라고 설명하였으나 老乞大 譯解의 시으가 오히려 위에서 본 예들과 더 가까운 표기로 보인다.

시웁, 시옥, 시웁, 시옥, 시으 중에서 어느 말이 제일 먼저 쓰인 말이든 간에 그것은 Afro-Asiatic 語族 中의 어느 한 나라 말에서 朝鮮으로 유래된 말인 것이 확실하다. 氈의 의미로 쓰인 李朝語 시웁, 시옥, 시웁, 시옥, 시으 드의 본래 뜻은 羊 또는 猨소의 뜻이었다. 氈은 주로 羊이나 猨소 등의 짐승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羊, 猨소, flock의 뜻인 Afro-Asiatic 語族의 어느 한 나라 말을 借用하여 그것을 音譯한 것이 시웁, 시옥, 시웁, 시옥, 시으 등이고 그것을 氈의 뜻으로 쓴 것이 확실하다.

6. 짚

짚은 검은 담비의 털가죽을 지칭한다. 이것은 털 밑둥이 누렇게 끝이 검은 자주빛으로서 貂皮中의 上品이다. 짚을 山獺皮, 紫獺, 貂熊皮, 黑貂皮라고도 한다²⁾.

貂皮는 獺皮라고도 한다. 訓蒙字會 上 18에 貂 돈피토 俗呼貂鼠라고 있다.

獺皮란 말은 獺義와 廣義의 뜻을 가지고 있다. 狹義의 獺皮는 노랑담비의 毛皮이고 廣義의 獺皮는 담비종류 동물의 모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 毛皮는 古代로부터 毛皮중에서도 아주 귀중한 毛皮로 여겨져 왔다.

獺皮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검은 담비의 모피인 '짚'이 상등, 노랑가슴담비의 모피인 '貂鼠皮'와 노랑담비의 모피인 '돈피'가 중등, 흰담비의 모피인 '白貂皮'가 하등이다. 貂皮, 斜皮, 黍皮 등으로도 일컬어진다.

1) 朝鮮館譯語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72), p.298.

2) 신기철, 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사전, 下, p. 2817.

또한 獭은 옛말로 담비라고도 하였다³⁾.

담비는 족제비과 담비屬에 딸린 동물의 통틀어 일컬음이다. 山獺이라고 하는 동물이다. 우리나라 남부, 일부 등지에 분포한다⁴⁾.

四聲通下 下 13에서는 獭鼠 돈피, 物譜 毛虫에서는 貂鼠 돈피라고 설명하였다.

잘이란 말이 주변어 가운데서 어느 나라 말과 관련이 있는지 유사한 말들을 주변어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漢語에 子兒皮라는 말이 보인다. 漢清文鑑 皮草類에서 子兒皮는 李朝語로 흑서피, 滿洲語로 야친 섬피라 설명하였다.

漢語 子兒의 兒字는 漢音으로 erl 풀이다. 兒字는 廣韻에 汝務切 集韻 韻會 正韻에 如支切이라 있어 erl음이⁵⁾.

李朝語 잘이란 말은 漢語 子兒皮의 子兒과 그 음상이 아주 비슷하고 子兒皮의 의미 또는 黑 서피여서 잘과 같으므로 잘은 漢語 子兒를 國音으로 표음한 말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잘이란 말은 자할의 변음으로 보인다.

漢語 貂鼠下類를 漢清文鑑 皮草類에 보면 李朝語로 돈피 자할이라 번역하였다.

即 貂鼠의 아랫턱 털을 자할이라 한 것이다. 아랫턱 털은 동물의 털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털에 속하는 것이므로 자할이란 말을 사용하여 貂鼠下類를 돈피자할이라고 번역한 것이라 해석된다.

잘, 자할과 類音인 말은 獬의 의미인 滿洲語 잘후란 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⁶⁾.

만주어 잘후란 말은 漢語 獬의 窩音이라고 보인다.

漢語 子兒皮의 子兒이란 말도 原來 獬音인 chair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보인다. 이 獬의 漢音 chair에 皮字가 뒤에 붙은 것이 子兒皮인 것으로 해석된다.

獬音은 廣韻에 士皆切이라 있고 集韻 韻會 正韻에 牀皆切 音儕이라 있어 chair이다⁷⁾.

만주어 야친 섬피란 漢語로 靑黍皮이다. 滿洲語 야친은 朝鮮語로 야청(鴉靑)색을 의미한다. 同文類解 下 26에서 漢語 鴉靑을 李朝語로 야청, 滿洲語로 야친이라 하였다. 漢清文鑑 皮草類에서는 漢語 綠絨皮를 李朝語로 청서피, 滿洲語로 섬피라고 설명하였다. 綠은 滿洲語로 광간이라 한다.

黑 검다는 滿洲語는 사하란이고 淡黑 검으스러 한다는 말은 사하후칸이다. 墨色은 사하후칸, 烏黑 沈黑色은 사하후리이다.

滿洲語로 貂鼠는 서커이다⁸⁾. 사할차(黑貂皮)의 차와는 音韻上 아무 관련이 없다. 사할차의 차는 漢語 豺의 漢音의 滿洲語 借用音으로 해석된다. 漢語 豺의 漢音을 찾아보면 chair 또는 chai 이다. 豺은 狼屬이고 貂는 鼠屬이지만 우리나라에서 貂를 豺의 의미인 잘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滿洲語에서도 國語에서와 같이 貂의 의미로서 漢語 子兒의 漢音을 借用하여 滿洲語音으로 音譯한 것이 차이이고 사할차는 卽 黑 검다란 의미의 사하란과 차가 합하여 만들어진 合成語일 것으로 믿어진다.

7. ㄹ음 ㄹ음

李朝語 ㄹ음은 資料의 뜻으로 쓰였다. 오늘날도 가암, 감, 가음 등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말이다. 類合下 29에 資 ㄹ음 즈라 있고 四聲通解下 18에 料 ㄹ음라고 있다.

類合上 3에 次 ㄹ음츠 라고 있다.

蒙語類解 補編 20에는 身料 ㄹ음이라고 있고 蒙古語로는 컵이라 있다. 蒙古語 컵은 감과 음상이 비슷하고 의미 또한 同一하다.

ㄹ음은 ㄹ음, ㄹ음 등으로 나타나고 漢語로는 坎音으로 나타난다.

李朝語 ㄹ음, ㄹ음과 비교할 수 있는 말을 주변어에서 찾아보면 Iraq-Arab에서 ㄹ음 또는 ㄹ음과 거의 同音인 말을 발견할 수 있다.

Iraq-Arab. 語로 xaam은 raw, unworked, unpro-

3) 신가철, 신용철, 새 우리말 큰 사전, 上, pp. 901-2.

4) 상계서, p. 792.

5) 中文大辭典, v. 3, p. 393.

6) 同文類解 下, p. 38.

7) 中文大辭典, Vol. 31, p. 364-5.

8) 同文類解 下, 39.

cessed의 뜻이다. 이 *xaam* 이라는 말은 ᄃᆞᄫ, 가얌과 音相이 거의 同...하고 이 말의 의미도 ᄃᆞᄫ, 가얌과 同一하다. ᄃᆞᄫ은 몽고어 킵보다는 音價가 *xaam*과 더 가깝다.

따라서, ᄃᆞᄫ 또는 가얌은 Iraq-Arab. *xaam*에서 朝鮮으로 流入된 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7. 천(布帛)

천이라고 하면 옷감 卽 布帛의 뜻이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는 말이다. 천이란 말은 오늘날은 口語體로 사용되고 있다. 천이란 말의 유래와 어원을 주변어에서 찾아보면 천이라 말은 漢語 巾 *chyan*, *chien*과 同音同義語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巾에 대하여 문헌에서 찾아보면 大漢韓 辭典에서는 비단 絹(帛也)라고 설명하였다

康熙字典에서는 巾廣韻, 巨淹切, 音前. *chien*이라 읽고 玉篇, 絹巾也. 集韻, 布帛也. 라 설명하였다. 中文大 辭典에서는 巾, 布帛也. 或作縑 集韻, 巾, 布帛名. 或作 縑 이라고 설명하였다.

위에서 보면 巾은 본래 絹帛의 뜻이었는데 布帛의 뜻으로 箭移된 것을 알 수 있다. 布帛의 뜻도 베와 비단의 뜻에서 布帛의 總稱으로 轉移된 것과 같다.

巾은 布帛을 일컫는다 따라서 천이란 말은 漢語에서 유래된 말인 것이 확증되었다.

Ⅲ. 結論 및 要約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직물관련용어 가운데서 고로, 무위, 帽緞, 帽紗, 시옥, 잘, ᄃᆞᄫ, 천을 택하여 이 말들의 어원, 의미, 주변 언어와의 관련성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 및 결과에서 중요한 것을 간략히 요약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綾의 의미로 쓰였던 고로, 고뢰라는 말은 漢字로는 '果落 또는 古奴'라고도 표기되었었다.

고로 또는 고뢰라는 말은 漢語 緞羅의 漢음을 國音으로 音寫한 것으로 규명되었다.

漢字 縑와 緞을 國語로 무위라고 하였는데 織物名으로서의 무위라는 말은 霧羅를 國語로 읽은 것이다.

漢語 帽緞은 滿洲語로 캄쿠라고 하는데 이 말은 *camak*, *camaca*, *camoca* 등 여러 가지로 표기되는 말의 음역인 것이었다.

卽 帽緞은 silk만으로도나 또는 silk와 낙타털, silk와 cotton을 섞어서 문양을 넣어 짜기도 하고 때로는 無紋으로 짜기도 한 직물인 *camak* 또는 *camaca*와 같은 종류의 緞織 직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帽紗는 國語로 무로라고 하는 말이다. 무로는 帽羅인데 黑羅를 의미하는 직물로 밝혀졌다.

縑의 뜻인 시옥, 시옥, 시옥, 사옥, 시오 등으로 표음되었던 이 말은 Afro-Asiatic 語族에서 유래된 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시옥, 시옥, 시오 등의 말들은 이집트, 아시리아어, 아라비아어, 회브리語 등에서 類音인 말이 발견되는데 羊 또는 염소의 의미였다.

縑의 語原은 羊 또는 염소란 의미였다.

잘이라는 말은 黑貂皮에 대한 국어이다. 잘은 黑黍皮를 지칭하는 漢語 子兒皮의 子兒에서 유래된 말이었다.

資料의 뜻으로 사용되는 ᄃᆞᄫ, ᄃᆞᄫ이라는 말은 몽고어 킵, Iraq-Arabia語 *xaam*과 유사한 音相과 同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국어 ᄃᆞᄫ, 가얌은 Iraq-Arabia語에서 유래된 것이 발견되었다.

천(布帛)이라는 국어는 漢語 巾 *chyan*, *chien*에서 유래된 말인 것으로 밝혀졌다. 巾의 의미도 布帛이어서 천과 巾은 音義 모두 同一하였다.

參考文獻

- 康熙字典
高福男(1986). 韓國傳統服飾研究. 서울 : 一潮閣.
國婚定例
金英淑(1988). 韓國服飾史辭典. 서울 : 民文庫.
金東旭(1979).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 亞細亞文化社.
金用淑. "宮中生活撥記의 研究", 향토서울, (Vol. 18. 1963년 10월), 79-168.
金用淑. "宮中女性 生活研究", 亞細亞 女性生活研究 (Vol. 15, 1965), 39-78.
金用淑. "李朝後期 內人生活研究", 亞細亞 女性研究 (Vol. Ⅲ, 1964), 155-187.
南廣祐(1971). 古語辭典, 서울 : 一潮閣.
老乞大 諺解
同文類解

- 朴聖實(1992). 朝鮮前期 出土 服飾研究, 世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朴通事諺解
尙方定例
- 石宙善(1971). 韓國服飾史. 서울 : 寶晉齋.
歷代喜禮都監儀軌
譯語類解
譯語類解補
- 劉頌玉(1991).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서울 : 修學社.
- 李京子(1983). 韓國服飾史論, 서울 : 一志社.
-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 柳喜卿(1975).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 張三植 編(1964). 大漢韓辭典, 서울 : 博文出版社.
才物譜.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 周錫保(1983).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 丹青圖書有限公司.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台北 : 中國文化研究所, 中華民國 51年
- 崔玉子. “李朝 宮中 佩物件記에 대한 考察,” 服飾, (3호, 1979), 1~28.
- 度支定例
漢清文鑑